

조선시대 강진객사 '금릉관' 위치는?

경찰서 일부·뒤편 주차장 확인 강진경찰서 이전 군민토론회 군민들 '금릉'관 복원 요구

조선시대 강진 객사인 금릉관 위치가 강진경찰서 일부와 뒤편 주차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9일 개최된 '강진객사 금릉관 복원을 위한 경찰서 이전 군민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강진객사 금릉관 복원을 위한 경찰서 이전 군민모임'(공동대표 차봉근 전 전남도의회 의장, 강영석 전 강진군의회 의장, 마삼섭 강진호도회회장, 위성식 강진군의회 의장)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강진군 이재연 학예연구사가 '강진현 객사 금릉관' 진행자로, 토론은 문화재 전문위원이자 고건축 권위자인 조선대 건축학과 신웅주 교수가 진행했다. 연구사 발표에서 조선 후기 '강진현 지도'와 '호남읍지', 1898년 일본인들이 만든 '조선지리지(朝鮮地誌略)'를 근거로 강진현 객사의 명칭은 '금릉관'이었다고 발표했다. 일제가 만든 '지적원도'와 '조선사진역서'를 검토한 결과 객사의 위치는 현 경찰서 일부와 태양광 주차장 인근이며 그 규모는 15칸(정청 3칸, 동익헌 7칸, 서익헌 5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신웅주 교수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객사와 동헌을 위시한 공해의 배치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

고 근거자료를 통해 복원을 위한 초석을 닦는데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객사가 있던 '강진읍성'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병영성'과 함께 불타 사라졌다. 강진경찰서는 1923년 이곳 '객사 터'에 들어선다. 일제가 임금의 '전패'를 모시는 객사 터에 굳이 경찰서를 만든 까닭은 조선인에게 압박을 가하고 헌병경찰 통치방식의 일환으로 민족 정기를 억누르기 위해서였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군민모임은 지난 6월 출범과 동시에 경찰서 이전을 위한 군민 서명운동, 사회단체 참여 독려, 현수막 게시, 언론 보도 등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민모임 공동대표들은 "강진경찰서 자리는 예전 강진군을 대표하는 금릉관이라는 객사가 위치한 장소로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지역의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것이 강진군민의 역할이다"고 주장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강진 수곡 싱가포르 수출길 이송욱(왼쪽 세번째) 강진군수와 지역 수곡 재배 법인인 '그린하워' 관계자들이 싱가포르 수출을 위해 수곡을 차에 싣고 있다. 그린하워는 고급 호텔과 국제행사장 용도로 싱가포르에 강진수곡 500송이를 정식 수출했다. <강진군 제공>

함평군 을 재산세 지난해보다 10% 늘어

산업용 건축물 관련 큰 폭 증가

함평군은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10% 가량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함평군이 올해 부과한 재산세는 총 19억4700만원으로 지난해 17억6800만원과 비교해 10.1%인 1억7900만원이 증가했다.

산업용 건축물 관련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억56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는 월야면에 들어선 빛그린산업단지 효과 때문으로 파악됐다. 빛그린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신축에 따른 재산세가 올해 처음으로 1억1400만원 부과됐다.

또 동광평산업단지 내에 들어선 10곳 업체의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75% 감면기간(5년)

이 종료됐고 관내 축사 100여동 신·증축과 공장 건축물 신축 등도 재산세 증대에 한몫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함평군은 광주글로벌모터스를 필두로 빛그린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공장이 유치된다면 세입 증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합평 유치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되면서 군 재정 확보에 정진호가 커졌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군민 70%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대표적인 농촌지역이지만 이제는 빛그린산업단 조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며 "빛그린산업단지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장성군 9월17일까지 휴가철 특별방역 운영

장성군이 휴가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방역 고삐를 더 단단히 조이는 대책을 마련했다.

장성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자 증가에 대비해 오는 9월17일까지 '휴가철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전남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실내·외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사적 모임은 8명, 행사·집회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최근 7일 이내 수도권 방문자와 타 지역 방문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도록 독려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오는 31일까지 3주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낸다. 장성군은

9월 말까지 전 군민의 70%인 3만1000여명까지 1차 접종 완료율 목표에 전향·문자·우편, 이·동장 등을 통해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오는 19·20일은 고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들 시작으로, 19·24일은 50·59세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는다.

자치단체 자율접종 대상인 운수업자와 환경미화원, 택배원, 검침원, 학원강사, 종교단체 관계자 등의 직업군은 19·28일 사전 예약 후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자가 격리 면제, 경로당 이용 등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예약을 해달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영산강 생태복원 '해수유통 계획' 수립 박차

민관 영산강위원회 3차 회의 최적의 해수 유통 방안 등 점검

나주시가 '영산강 생태복원'의 열쇠인 '해수유통 종합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1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영산강 환경 생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산하 영산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해수 유통 종합계획' 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영산강 생태복원'은 지난 1981년 목포 하굿둑 건설 이후 악화된 영산강 생태환경 복원이 목적이

다. 나주시가 차기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추진 중인 '5대 선도 정책과제' 중 하나다.

해수유통은 매년 반복되는 영산강 녹조현상 등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 영산강과 영산호를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자연 그대로 복원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회의에서 강인규 나주시장은 "올해 제2차 하굿둑 개방이 진행 중인 낙동강과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 용역을 완료한 급강의 사례를 거울삼아 영산강 생태복원을 위한 최적의 해수유통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와 영산강위원회는 앞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낙동강 하굿둑 개방 사례와 더불어 급강하

구 생태복원 추진 현황 등을 통해 목표 하굿둑 개방에 따른 최적의 해수유통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종합계획은 영산강의 지형·기상·유속·수온·염분 등 생태환경과 하굿둑·보 제원, 하구 조위, 하천 수위, 방류량 등 기초자료 수집 분석에 따른 수치 모델을 구축하고 해수유통 결과를 예측하는 데 중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해수유통 시나리오와 관련해 하굿둑 수문 개방으로 해수가 유입될 시 염분 침투 범위, 농경지·양수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3D 펜 전문 지도사 양성' 교육

청년농업인 15명 선착순 모집

담양군이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상품 개발을 위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3D 펜 교육 전문 지도사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담양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39세의 청년 농업인으로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교육은 8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며, 교육 프로그램은 3D 기초과정 및 응용과정 등 총 10강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3D 펜과 프린터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평면 도형 연결을 통한 입체 구조제작, 3D 펜의 복합기법을 활용한 예술 조형물 제작하기 등을 집중적으로 익히게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현장과 연계한 강사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 청년 농업인들의 역량 개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장흥군, 농축협과 '출생 축하금' 지원 업무협약

장흥군과 지역 8개 농·축협은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신생아를 출생한 가정이 농·축협에서 통장을 개설할 경우 출생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 박기승 본부장과 장흥군조합운영협의회 회장인 김의중 천관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지역 축협, 농협 조합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신생아 출생 가정이 농·축협에서 '우리아이 첫 통장'을 개설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출생 축하금을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올해 7월 이후 출생한 농·축협조합원 자녀이며 지역 조합별 세부 지원 기준에 따라 일반인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증액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우리 군에서는 출생신고 시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